

“인도 시장 공략” 기아 ‘시로스’ 본격 양산

혁신적 디자인·기술 적용 콤팩트 SUV 첫 선 사전계약 1만여대...내달 1일 가격 공개·판매

기아가 인도 공장에서 새로운 글로벌 전략 모델 ‘시로스(Syros)’의 생산을 시작하며 본격 양산에 나선다.

20일 기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 시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州)에 위치한 인도 공장에서 콤팩트 SUV ‘시로스’ 양산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기아 인도 대표, 이태훈 글로벌사업관리본부장, 이광구 인도 권역본부장 등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아는 지난해 12월 인도에서 시로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으며 인도 현지 생산, 판매에 앞서 맞춤형 차량을 만들기 위해 시장 분석을 면밀히 진행했다.

차명인 시로스는 그리스 카를라데스

제도의 섬 이름을 따온 것으로 전통과 서구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시로스 섬의 이미지를 투영해 경쟁 모델들과 차별화된 상품성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시로스는 도심형 SUV로서 다양한 첨단 사양과 스마트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비롯해 대담한 디자인, 편안한 실내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뒷좌석에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기능과 함께 통풍 시트 등을 적용하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 등을 장착해 동일 차급 최고 수준의 이동 경험을 선사한다.

시로스는 사전계약 실시 이후 1만288대 기록하며 인도 시장에서 판매 흥행을 예고했다.



기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주(州)에 위치한 인도 공장에서 콤팩트 SUV ‘시로스’ 양산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아차 제공>

기아는 다음달 1일 시로스를 인도 시장에 가격 공개 및 판매 개시할 예정이며 아예, 중남미, 아중동 지역으로 판매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의 새로운 모델인 시로스는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첨단 사양과 편안한 실내 공간 등을 갖췄다”면서 “시로스를 통해 인도 현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 제공하고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판매

주행거리·안정성 ↑...가상변속기능 등 탑재

제네시스가 전기차인 GV70의 전동화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사진)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2022년 3월 첫 출시된 GV70 전동화 모델은 G80 전동화 모델, GV60에 이은 제네시스의 세 번째 전기차로 2년10개월 만에 첫 부분 변경 모델을 선보였다.

신형 GV70 전동화 모델은 84kWh(킬로와트시)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를 기존 400km에서 423km로 늘렸다.

또 사용자가 원할 때 배터리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를 개선했다.

제네시스는 신형 GV70 전동화 모델에 새로운 전기차 전원 제어 기술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동 버튼을 1회 눌러 전기는 사

용 가능하고 주행은 불가능한 ‘파워 온’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

신형 GV70 전동화 모델은 기존에 적용됐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ESC)에 고속도로 바디 모션 제어(HBC) 기술이 추가돼 주행 안정성도 높였다.

여기에도 전기차 모터 제어를 통해 내연기관 차량의 변속 느낌을 제공하는 가상 변속 기능과 신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적용했다.

신형 GV70 전동화 모델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브랜드 상징인 두 줄 헤드램프와 함께 지-매트릭스 패턴을 그래픽이 선 형태로 입힌 새 크레스트 그릴을 탑재했다.

실내는 또 다른 디자인 철학인 ‘여백의 미’에 따라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cciC)을 하나로 합친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터치 타입 공조 조작계를 배치했다.

이 밖에도 뱅앤올룹슨 고품향도 사운드 시스템과 사용 편의성을 높인 음성인식 시스템도 새롭게 추가됐다.

/임채만 기자



현대차·기아 美 ‘2024 굿디자인 어워드’ 대거 수상

19개 제품 운송·로보틱스 등 두각

현대자동차·기아가 미국의 권위있는 디자인상을 대거 수상하며 혁신적인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20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총 19개 제품이 미국 ‘2024 굿디자인 어워드’ 운송,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미국 굿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

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부분별 우수 디자인 제품을 선정해 부여하는 상이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CES에서 선보인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DICE(Digital Curated Experience)’와 ‘SPACE(Spatial Curated Experience)’, ‘CITY POD’은 운송 부문에서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DICE는 AI를 기반으로 탑승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이며 SPACE는 이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공공 모빌리티다. 수소 에너지기술이 적용된 CITY POD은 물류 모빌리티로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미래 물류 비전을 제시한다.

기아의 해외 전략형 모델 K4도 수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K4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릿 유니티드(Opposites United)’를 기반으로 역동적이며 강인한 형태를 강조한다. /임채만 기자

현대차 ‘2025 EV 에브리케어’ 출시

맞춤형 통합케어 프로그램 강화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EV)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케어 프로그램 ‘EV 에브리(Every)케어’의 혜택과 보장을 강화해 새롭게 리뉴얼했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2025 EV 에브리케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2025 EV 에브리케어는 블루 안심 점검 서비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

긴급충전특약보험, 잔존가치 보장 대상 확대 등의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충전 크레딧 또는 홈충전기 지원(설치비 포함) 혹은 EV 전용 타이어 2본 중 선택한 하나를 제공하는 ‘EV 구매혜택’, 신차 교환 지원, 일반 부품 보증 연장 및 바디케어 서비스 등의 기존 혜택도 포함한다.

먼저 ‘블루 안심 점검 서비스’는 기존 8년 간 총 8회 제공했던 안심 점검 서비

스를 2회 확대해 10년 간 매년 1회, 총 10회의 안심 점검을 제공하며 보다 안전한 전기차 운행을 지원한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전기차 화재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하고 발화차주의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 한도액이 초과할 경우 최대 100억원의 손해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긴급충전특약보험’은 보험사와 연계해 자동차보험 갱신 및 신규 가입 시 적용할 수 있는 특약으로, 전기차 방전 우려가 있을 때 2회 15kWh의 긴급 충전을 제공한다. /임채만 기자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사제·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신회관 방향)